

3) 무의식과 굿의 종류

세습무의 굿에서 흔히 등장하는 신격들은 성주·조왕·손님·조상·지신·제석·제왕·시왕 등을 들 수 있고, 그밖에 저승사자와 이름 없는 잡귀·잡신들도 등장한다. 위에 열거한 신격들은 이미 초자연적 세계에 좌정해 있거나, 설혹 잡귀·잡신들처럼 이승과 저승을 떠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인간 세계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춤이나 굿의 한 장면)들은 각기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거리들은 청신(淸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과정들을 공통적인 기본 요소로 갖고 있다. 설혹 세 과정 중 하나 또는 둘의 과정만 갖고 있는 거리가 있다 하여도 이는 나머지 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세 과정을 기본 요소로 하는 모델을 따르다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 단골의 성무과정에 강신 체험이 없듯이 무의식에서도 단골에게 강신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진도 씻김굿의 손대잡기 의례절차와 혼건지기·혼맞이굿의 대잡기 등에서 망자와 그밖의 조상들의 넋이 대를 통해 강신하는데, 이 현상은 가족원이나 친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단골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손대잡기와 같은 중재방식이 단골 무의의 본래적인 것인지,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대를 잡는 절차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망자와 그밖의 조상들의 의사를 발화하는 현상 외에, 단골의 입을 통해 공수(神託)가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세습무의 무의에서는, 신격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되 신격들의 실재를 증거로 보이는 과정은 거의 없다. 세습무의 무의는 그 실재를 상정해놓고 이들에게 사람들의 원망을 기원하거나, 신격들이 살고 있는 초자연적 세계를 상정해놓고 사자의 넋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경기·황해지역 등의 강신무의 굿에서는 신의 의사가 발화되는 공수, 각 거리마다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화려한 의상, 신의 위력을 보이는 작두타기 등의 절차를 통해 신통의 분위기가 강조되는 반면 전남지역 세습무의 굿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없다. 강조되는 것은 무가·춤·놀이를 통한 예술성·연희성이다. 예를 들어 육자배기 소리의 세련된 무가와 다양한 장단에서 발견되는 예술성, 그리고 굿판에서 어우러지는 관객들의 소리와 흐트러진 춤사위 등에서 나타나는 놀이적 분위기는 괄목할 만하다.

굿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에는 관점과 연구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굿을 연행하는 동기·목적에 따라 본다면 첫째 살아 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구복 그리고 제액을 위한 굿, 둘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화하여 좋은 곳으로 보내 조상신으로 좌정토록 하는 굿, 셋째 강신무가 자신들을 위하여 하는 굿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방식에 따라 전남지역 세습무의 굿을 분류해보면 첫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도신, 성주올리기, 사자막이, 대신맥이, 그리고 마을굿과 작은 '비손'류의 굿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마을 단위의 굿은 보기 어렵다. 둘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씻김굿류의 굿들이다. 세번째는 강신무 특유의 굿이다. 여기에는 신들린 사람이 무당이 되기 위한 내림굿, 일단 무당이 된 뒤에 자기가 모시는 신들에게 바치는 무당의 재수굿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적굿이 있다. 세습무는 이러한 신굿을 하지 않는다.

세습무의 굿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굿 중에서 날받이 씻김굿과 혼맞이굿, 저승혼사굿 등은 지금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초분 본장(本葬) 때의 씻김굿이나, 도신·성주올리기 같은 재수굿 그리고 제왕맞이 같은 굿은 요즘에

는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보기 어렵다.